

사제1] ○○이는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경기에서 패하자 상대팀과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미워져 그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이유를 보냈다.

사제2] △△는 운동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목이 발라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 먹으려고 했다. 그런데 마침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음료를 사 먹을 수 없었다. 화가 난 △△는 자판기를 발로 차며 망가뜨렸다.

1. 사례1]에서 ○○이가 내린 도덕 판단을 검토해 보자.

- ① 도덕 원리의 측면: ○○이는 응원정서를 합리적으로 보지. 예외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. 라는 도덕 원리를 잘 알지 못했다.
- ② 사실 판단의 측면: ○○이뿐 ^가 상대 팀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은 응원선수로 예외에 인정할 수 없다. 라는 사실 판단을 하지 못했다.

2. 사례2]에서 △△가 내린 도덕 판단을 검토해 보자.

- ① 도덕 원리의 측면: △△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시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라는 도덕 원리를 잘 알지 못했다.
- ② 사실 판단의 측면: △△는 '자판기를 파손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' 라는 사실 판단을 하지 못했다.

3.

도덕 원리	공부 잘하는 학생은 착하다.
사실 판단	도윤이는 공부를 잘한다.
도덕 판단	도윤이는 착하다.
잘못된 부분	△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정서원리라고 볼 수 없음. △ 선한 감정을 함양한 것이라 나는 보지 않아요

4.

도덕 원리	남을 돕는 사람은 착하다.
사실 판단	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에서 남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.
도덕 판단	그 배우는 착하다.
잘못된 부분	'남을 돕는 역할은 많은 관객이 좋아하는 역할이다' 라는 정서원리라고 볼 수 없음. 남을 돕는 역할은 많은 관객이 좋아하는 역할이다' 라는 정서원리라고

1	2	3	4	5	6	7	8	9
10/15	10/11	10/15	10/11		10/11	10/11	10/18	10/11

